

# 현안과 과제

■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 목 차

---

## ■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	3
3. 결론 및 시사점 .....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산업전략본부장 (2072-6228, hkback@hri.co.kr)

신성장연구실   :   전   해   영   연   구   위   원 (2072-6241, hje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 ■ 개요

한-중간 사드 갈등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동월대비 40.0% 감소한 36.1만명을 기록한 이후 7월까지 5개월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 국내 제품·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나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관광객 급감과 더불어 숙박업 BSI가 급락하는 등, 국내 관광업에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사드 추가 배치가 결정되면서 한-중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에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분석 방법)** 사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중국인 관광객 규모에서 실제 방한 중국인 규모를 제외하여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를 추정한다.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관광 지출액을 적용해 국내 관광업의 손실액을 추산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간접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직접 손실)**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규모에 2016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한국 관광 평균 지출액인 1,956달러를 적용하면 중국인의 한국 관광 포기로 인한 관광 손실액은 65.1억 달러(약 7.6조원)로 추정된다. 연간(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관광객 감소 규모는 약 798.9만명, 손실액은 156.2억 달러(약 18.1조원)로 나타난다. 이는 각각 2016년 연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1,724.2만명)의 46.3%, 전체 외래 관광객 총 지출액(280.2억달러)의 55.8% 수준이다. 연간 추정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손실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손실액이 108.9억달러로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식음료업, 숙박업 순으로 손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숙박업의 경우 외래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피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파급효과)** 사드 갈등으로 연간 798.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하는 경우 직·간접적인 명목 생산유발손실액은 33조 9,726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가가치유발손실액은 15조 1,048억원, 취업유발손실은 40만 1,538명으로 추산되었다.

## ■ 결론 및 시사점

사드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국 관광산업은 연간 관광객 46% 감소, 연간 관광 수입의 56%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유발손실액, 취업유발손실 등도 예상된다. 관광산업 위축 방지 노력 확대 및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국내 관광산업은 특정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간 관광 협력 강화, 관광객 대상 이벤트 개최, 지역별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개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방한 유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개인 여행객 증가 전망,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 관광산업 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현지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한국 관광 마케팅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개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업의 특성상 내·외부적 불안정성 요인에의 사전 대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국가의 (관광)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관광객 감소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 오락·문화 등 한국의 콘텐츠 파워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 강화 등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 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일부 산업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관광사업체는 관광사업의 주체이자 인프라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관광객 감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용자 실시, 부가세 납부유예 또는 일부 면제 등 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 사드 갈등 장기화로 예상되는 손실 및 파급효과 요약(연간 기준) >

구분	규모	비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	798.9만명	연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1,724만명의 46.3% 수준
직접 손실액	18.1조원	연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지출액 280.2억달러(32조 5,208억원)의 55.8% 수준
생산유발손실액	34.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액	15.1조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4조원의 0.9% 수준
취업유발손실	40.2만명	국내 총 취업자 수 2,623.5만명의 1.5% 수준

자료 :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비교에서 인용된 수치는 2016년 기준.

## 1. 개요

### ○ 방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 현황과 배경

-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2017년 7월 현재 방한 관광객은 전년동월대비 40.8% 감소한 100.9만명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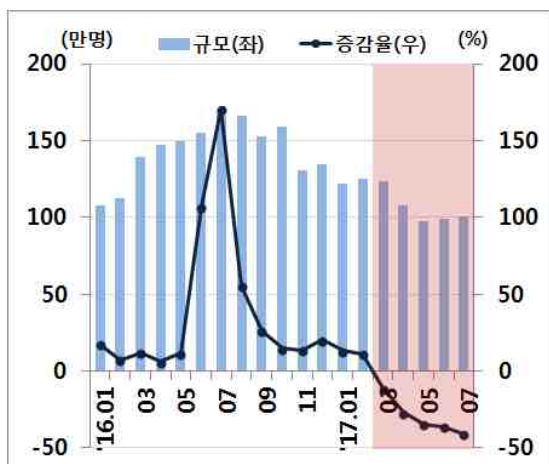
-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은 2017년 3월 들어 메르스(2015년 6~8월)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전년동월대비 -11.2% 감소) 123.4만명을 기록
-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7월에는 전년동월비 40.8% 감소한 100.9만명을 기록하여 2013년 수준으로 후퇴

\* 연도별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 규모: ('12) 92.8만명 → ('13) 101.5만명 → ('14) 118.3만명 → ('15) 110.3만명 → ('16) 143.7 만명.

-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배경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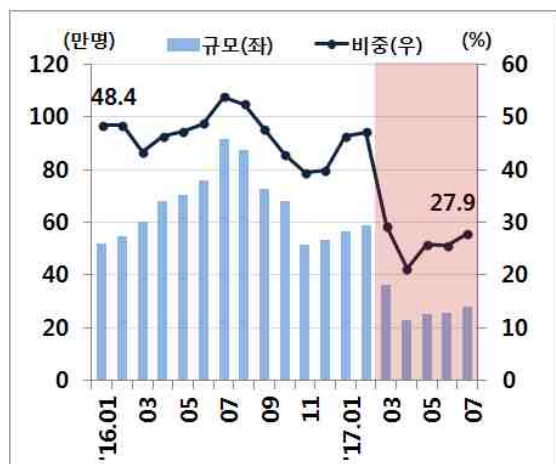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발전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2008년 월평균 9.7만명에서 2016년 67.2만명으로 8년간 8배 가까이 증가
- 하지만 2017년 3월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동월대비 40.0% 감소한 36.1만명을 기록한 이후 7월까지 5개월간 감소세가 지속
- 2017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규모는 28.1만명, 전체 관광객 대비 27.9% 수준으로 급감

< 외래관광객 증감 추이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 중국인 관광객 규모 및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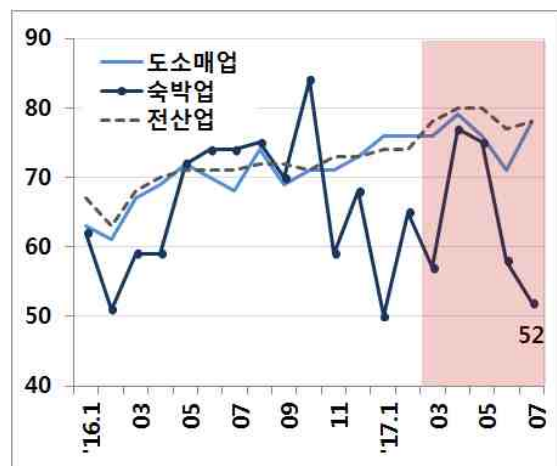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  
주 : 비중은 전체 외래관광객 중 비중.

-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경제 보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중국은 한반도 사드<sup>1)</sup> 배치가 언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왔음<sup>2)</sup>
  - 2016년 7월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합의를 발표한 후 중국 측의 위생 및 검역(SPS) 강화 등 비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상품 판매 등 금지,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확산
- 최근 숙박업의 BSI가 급락하는 등, 국내 관광업에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
  - 한때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전체 방한 관광객의 50%에 달했을 만큼 국내 관광산업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커 급감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호소
  - 대표적으로 2017년 7월 현재 숙박업의 BSI는 52로 전년동월의 74 대비 22p 감소한 수준
-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사드 사태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에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대 추가 배치를 결정한 바 있으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항의·불만을 표출

< 사드배치 및 중국 대응 일지 >

일자	내용
'14.6월	-미국 국방부 “한국정부, 사드 관련 정보 요청했다”
'16.1월	-(4일) 북 4차 핵실험
'16.2월	-(7일)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
'16.7월	-한·미, 사드배치 공식 발표
'17.2월	-정부-롯데 부지교환 계약 체결
'17.3월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강화 · 롯데마트 영업중단 · 한국 여행 금지 등

< 관광 관련 업종별 BSI 추이 >



자료 : 통계청, 기업경기조사.

1)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비행 최종 단계에 돌입한 적의 미사일을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로 이해하고 있어 동북아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2)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중국 주요 인사: ('14.2)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 ('15.5) 쑨젠궈(孫建國) 중국군 부총참모장, ('16.2)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16.3) 중국 외무장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 2.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 (1) 분석 방법

#### ○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실 및 경제적 효과를 추정

- (개요) 중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추정하고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을 적용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의 잠재적 손실을 추정
  - 먼저 2017년 3월~7월 기간 사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중국인 관광객 규모에서 실제 방한 중국인 규모를 제외하여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 및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손실액을 추정(①직접 손실)
  -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간접 효과를 계산 (②직·간접 파급효과)
  
-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 추정) 잠재적 방한 중국인 관광객과 실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차이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를 추정
  - 사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 분석 대상 기간 한국을 방문했을 잠재적 중국인 관광객(관광 수요) 규모를 추정\*
    - \* 사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동월대비 28.4%(2008~2016년 연평균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여기서 실제 방한 중국인 규모를 제외하여 한국 관광을 포기한 중국인 관광객, 즉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를 추산
    - \*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 = (사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 잠재적 방한 중국인 관광객 규모) - (실제 방한 중국인)
  
-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직접 손실액) 직접 손실액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에 준하는 관광 지출액으로 추산
  -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한국 경비\*를 계산한 후,
    - \* 1인당 한국 경비는 계산 편의를 위해 개별/단체/에어텔 고객의 지출 경비를 가중 평균
  - 앞서 산출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에 1인당 경비를 적용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손실된 관광 지출액('직접 손실액')을 도출
    - \* (직접 손실액) =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 x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한국 지출 경비)
    - \* 달러 기준 손실액은 2016년 연평균 환율 '1.160.5원/달러'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관광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을 분류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연간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내 경제(관광업)의 손실로 파악
  -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관광산업과 연관성 높은 산업을 재분류하여 국내 생산·부가가치·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은 2014년 연관표를 기준으로 수행
  -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을 쇼핑비,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 오락관련 지출, 문화관련지출, 한국여행사지불비, 운동관련지출 및 기타로 분류
  - 관광객의 국내 지출과 연관이 높은 산업으로 도소매, 음식점, 숙박, 철도운송, 도로운송,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기타사업서비스를 분류
  - 이상 관광 관련 산업들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관광 매출 손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

**【참고】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지출 경비**

-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 관광에서 평균적으로 1인당 1,956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
  - 유형별 중국인 관광객(개별, 단체, Air-tel<sup>3)</sup>)의 1인당 한국 지출 경비를 가중 평균으로 계산
  - 단, 단체 및 Air-tel 관광객이 본인 거주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숙박비 등 일부 한국 내 지출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용을 추정
    - \* (본인 거주국 지출 비용) = (항공료, 한↔중 기준 약 200달러 가정)+(여행사 지불비 등 거주국 내 지출 비용, 지불 총액의 약 10% 가정)+(한국 내 지출 비용)
    - \* 일반적으로 단체 관광객은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가, Air-tel 관광객은 숙박료가 포함

**<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한국 관광에서 지출하는 경비(2016년 기준) >**

	쇼핑	숙박비	식음료	교통	오락·운동	문화	한국 여행사	기타	총 지출
개별	1,420	310	322	95	9	5	2	45	2,208
단체	1,293	84	168	34	6	0	0	3	1,588
Air-tel	1,258	291	246	65	0	1	0	4	1,866
평균	1,363	224	259	71	7	3	1	27	1,95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외래관광객실태조사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주 : 본인거주국 지출경비 중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본 분석에서 제외.

3) Air-tel은 항공권과 숙박만 포함된 여행상품으로 단체여행과 달리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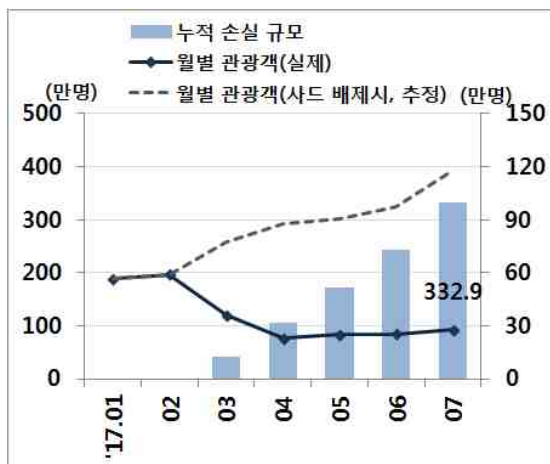


(2)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실 추정 결과

○ 직접 손실

- (관광객 감소 규모)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약 332.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 먼저 사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이 통상적 수준으로(전년동월 대비 28.4%) 증가함을 가정하는 경우, 월별 중국인 관광객 규모는 2017년 3월 77.3만명에서 7월 117.8만명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 하지만 사드 갈등으로 인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3월 36.1만명에서 7월 28.1만명으로 급감
  - 결과적으로 5개월간 332.9만명의 중국인이 한국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 (손실액) 이로 인한 잠재적 관광 손실액은 65.1억 달러(약 7.6조원)
  - 332.9만명 x 1,955.6달러 = 65.1억 달러(약 7조 5,549억원, 2016년 평균 환율 1160.5 원/달러 적용)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이를 연간(12개월)으로 환산하면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는 798.9만명, 잠재적 관광 손실액은 156.2억달러(약 18.1조원)
  - 관광객 감소 규모는 2016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1,724.2만명의 46.3% 수준
  - 손실액 156.2억 달러는 2016년 연간 외래 관광객의 총 지출액(추정)인 1,724.2만명 x 1,625.3달러<sup>4)</sup> = 280.2억달러의 55.8% 수준

<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추정) >



자료 :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사드 갈등으로 인한 월별 관광 손실액 규모(추정) >



자료 :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비율은 전년동월 관광수입 대비.

4) 2016년 기준 외래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 지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외래관광객실태조사보고서').

- (부문별 손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손실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손실이 높을 것으로 추정
  - 쇼핑 지출이 높은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상\*,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파급 효과는 특히 도소매업에서 크게 나타나 연간 총 108.9억달러(약 12조 6,373억원, 2016년 평균 환율 1,160.5원/달러 적용)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 2016년 유형별 관광객의 평균 쇼핑비: (전체) 916.4달러, (중국인) 1,363.0달러
  - 이는 2015년 종합 소매업 매출 총액인 118.5조원의 10.7% 수준
  
- 다음으로 식음료업, 숙박업 순으로 손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숙박업의 경우 외래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피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음료업에서는 20.7억달러(약 2조 4,056억원)의 잠재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 음식점업 매출 총액인 89.8조원의 2.7% 수준
  - 숙박업에서는 17.9억달러(약 2조 795억원)의 잠재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이는 2015년 숙박업 매출 총액인 11.8조원의 17.7% 수준으로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이며, 외래 관광객에의 의존도가 높은 숙박업의 특성을 반영
  - 그 외 운송업에서 5.6억달러(약 6,541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에서 8,054만 달러(약 935억원) 등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부문별 손실액 추정(연간 기준) >

(단위: 억달러, %)

항목	규모 (비중)	비고
쇼핑비	108.9 ( 69.7)	종합소매업 매출액 (118조원)의 10.7%
식음료비	20.7 ( 13.3)	음식점업 매출액 (90조원)의 2.7%
숙박비	17.9 ( 11.5)	숙박업 매출 (12조원)의 17.7%
교통비	5.6 ( 3.6)	(-)
오락·문화 지출	0.8 ( 0.5)	(-)
기타 비용	2.3 ( 1.6)	(-)
계	156.2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비고에서 인용된 수치는 2015년 기준.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
- (생산유발손실액) 관광객 감소에 따른 생산유발손실액은 34.0조원으로 추정
  - 사드 갈등으로 798.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을 포기함에 따른 직·간접적인 명목 생산유발손실액은 33조 9,726억원
- (부가가치유발손실액) 관광객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손실액은 15.1조원
  -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명목 부가가치유발손실액은 15조 1,048억원
  - 이는 201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1,637.4조원(명목 기준)의 0.9% 수준
- (취업유발손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취업유발손실은 약 40.2만명으로 추정
  -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직·간접적인 취업유발손실 규모는 40만 1,538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국내 총 취업자수 2,623.5만명의 1.5% 수준
- (산업별 취업유발손실)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순으로 취업유발손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산
  - 산업별로, 도소매업에서는 26.5만명의 취업유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6년 도소매업 전체 취업자 수 372.9만명 대비 7.1% 수준
  - 숙박업에서는 5.4만명, 식음료업에서는 6.3만명의 취업유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취업자 227.7만명의 5.2% 수준
  - 운수업에서는 16,500여명(운수업 취업자 141.2만명 대비 1.2%), 오락·문화 등 서비스업에서는 1690여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40.6만명 대비 0.3%)의 취업유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

<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간접 파급효과 > < 관광객 감소로 인한 취업유발손실 >

	규모	비고		규모	비고
생산유발손실	33조 9,726억원	(-)	도소매업	265,006명	도소매업 취업자의 7.1%
부가가치유발손실	15조 1,048억원	GDP의 0.9%	음식점업	63,319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의 2.8%
취업유발손실	40만 1,538명	전체 취업자의 1.5%	숙박업	54,737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의 2.4%

자료 :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비교에서 인용된 수치는 2016년 기준.

자료 :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비교에서 인용된 수치는 2016년 기준.

### 3. 결론 및 시사점

#### (1) 결론

- 사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산업은 연간 전체 외래 관광객 감소율 46%의 위기에 직면
  - 또한 연간 관광 수입 감소율은 56%에 달할 전망
- 나아가 관광객 급감으로 부가가치유발손실, 취업유발손실 등이 예상
  - 부가가치유발손실액은 15조 1,048억원으로 2016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4조원의 0.9% 수준
  - 40.1만명 규모의 취업유발손실이 발생하면서 관광 산업 종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사드 갈등 장기화로 예상되는 손실 및 파급효과 요약(연간 기준) >

구분	규모	비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	798.9만명	연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1,724만명의 46.3% 수준
직접 손실액	18조 1,317억원	연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지출액 280.2억달러(32조 5,208억원)의 55.8% 수준
생산유발손실액	33조 9,726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액	15조 1,048억원	국내총생산(GDP) 1,637.4조원의 0.9% 수준
취업유발손실	40만 1,538명	국내 총 취업자 수 2,623.5만명의 1.5% 수준

자료 :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비고에서 인용된 수치는 2016년 기준.

#### (2) 시사점

- 관광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
  - 첫째,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현재 국내 관광산업은 특정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이는 내·외부적 충격 발생 시 국내 관광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간 관광 협력 강화, 관광객 대상 이벤트 개최, 지역별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추진

- 둘째, 개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유도를 모색
  -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개인 여행객 증가 전망,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국 관광객은 국내 관광산업 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
  - 한편 중국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 여행사의 여행상품에 의존하지 않는 개인 관광객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이에 현지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한국 관광 마케팅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개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
  - 예를 들어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중국·동남아 국가의 단체비자 수수료 한시적 면제, 단수비자 유효기간 일괄 (3개월) 연장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관광업의 특성상 내·외부적 불안정성 요인에의 사전 대처는 한계가 존재
  - 다만 국가의 (관광)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관광객 감소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 오락·문화 등 한국의 콘텐츠 파워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 강화 등
  
- 넷째, 산업 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도소매업, 호텔업 등 일부 산업의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산업 내 실업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관광사업체는 관광사업의 주체이자 인프라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할 필요가 제기되는 바, 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추진되어야 함
  -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융자 실시, 부가세 납부유예 또는 일부 면제 등 지원을 고려

전 해 영 연구위원 (2072-6241, hjeon@hri.co.kr)